

# 서재필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형성과 상극

김 봉 진(金鳳珍)\*

## ■ ———— << 目 次 >> ———— ■

- |                  |                    |
|------------------|--------------------|
| 1. 머리말           | 3.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상극   |
| 2.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형성 | 1) 조선관 — 자존과 조선 멸시 |
| 1) 개화당 참여와 일본 유학 | 2) 자주독립 - 민권과 국권   |
| 2) 갑신정변과 일본 망명   | 4. 맺음말             |
| 3) 미국 유학과 귀화     |                    |

## 1. 머리말

아이덴티티(동일성, 귀속성)라는 개념을 에릭슨(Erik H. Erikson: 1902-94)은 '자기의 제일성(齊一性)·연속성과 타자에 의한 자기 승인'이란 두 향으로 정의한다. 그에게 아이덴티티란 자기 행동과 사회적 승인이 일치하는 체험을 통해 자존(自尊: self-esteem)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자존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회적 현실의 틀 속에서 명시된 자아(a defined ego)를 향해 발달하고 있다."는 확신 감각을 뜻하는데, 그 감각을 에릭슨은 '자아 동일성(ego identity)'이라고 부른다.<sup>1)</sup> 그런 뜻에서 아이덴티티는 '자존 감각'에 다름 아니다.

'타자에 의한 자기 승인'은 자기와 타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함의한다. 그리고 '특정한 사회적 현실의 틀'은 한 인간을 둘러싼 상황(context)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이 상황은 자기와 타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상관된다. 이로써 아이덴티티는 자기, 타자, 상황이란 세 함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동시에 변용해 간다. 이같은 상호작용에는 동조와 저항, 모방과 반발 등 순역(順逆) 작용이 복잡하게 착종한다.

에릭슨은 '승인하는 타자'의 범주를 가족, 친구, 이웃(neighbors)과 같은 구체적 타자로 생각하

\* 北九州市立大学 外国語学部 国際関係学科 教授

1) E. H. エリクソン著(小此木啓吾譯編), 1973 『自我同一性 アイデンティティとライフ・サイクル』, 誠信書房, 10면. (Erik H. Erikson, 1959 *Psychological Issues: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는 그가 정신분석가로서 '자아 동일성' 문제에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실제로 그의 주요 관심은 한 인간이 독특(unique)한 존재로서 통합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에 있었다. 그리고 청년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통합되지 못하는 위기상황을 '동일성 위기(identity crisis)'라 하여 그 장애에 주목했다. 후에 이 용어는 '동일성 혼란(identity confusion)'으로 고쳐지면서 자기상(自己像)의 퇴행적 분열을 뜻하게 된다.<sup>2)</sup> 이들 개념은 본고의 테마를 고찰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런데 '승인하는 타자'의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추상적 타자를 포함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지(local), 공동체, 사회, 네이션, 지역(region) - 나아가서는 지구 - 이란 집단 내지 영역. 이들 다차원적인 추상적 타자는 각각 공통의 전통, 문화, 사상을 지닌다.<sup>3)</sup> 이들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는 다차원적이고 복수적인 (자기)로 분지(分枝)내지 분열되는 동시에 집단 아이덴티티를 다층적으로 형성한다. 그 중 하나의 층위에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자리잡는다. 그것은 네이션/내셔널리즘과 마찬가지로 근대에 들어서 '상상된 것'이거나 '발명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sup>4)</sup>

한편 코넨리(William E. Connolly)는 "아이덴티티와 차이의 관계에는 정치가 스며들어 있다."고 말한다.<sup>5)</sup> 그에 의하면 아이덴티티는 보통 사회적으로 승인되어 온 일련의 차이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된다. 그 차이는 아이덴티티가 존재함에 있어 본질적인 것이며, 타자의 배제나 타자성의 억압으로 쉽게 변한다(119쪽). 이는 아이덴티티에 늘 수반되는 심각한 양의성(兩義性)이다.

그렇지만 차이에 의한 배제와 억압은 타자에 대해서만 아니라 (분지·분열된) 자기에 대해서도 행해진다. 자기 내부에선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둘러싼 싸움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싸움이 발생하면 자기는 스스로 진정하다고 보는 아이덴티티 이외의 자기를 타자화시켜서 그 타자성을 배제하고 억압한다. 그리고 <동일화된 자기>와 <차이화된 자기>로 분지·분열된다. 즉 자기동일화는 자기차이화(=자기타자화)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차이화·타자화된 자기의 공백에 타자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타자자기화(=타자동일화)를 수반한다.

본고에서는 서재필(1864-1951)에 보이는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형성과 상극을 밝혀 보고자 한

2) E. H. 에릭손著(岩瀬庸理譯), 1983 『아이덴티티 青年と危機』, 金澤文庫, 171면.(Erik H. Erikson,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 Inc.) E. H. 에릭손, 같은 책, 제 4장.도 참조.

3) 본고에선 자기와 타자의 추상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 <자기>, <타자>로 표기한다.

4) '상상된 것'이란 관점은 Benedict Anderson,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발명된 것'이란 관점은 Eric Hobsbawm and T. Ranger eds.,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참조. 후자의 관점에 따르면 네이션/내셔널리즘은 근대에 들어서 발명된 전통의 하나로 이해된다.

5) 윌리엄 E. 코넨리著(杉田敦외 譯), 1998 『아이덴티티/差異 他者性の政治』, 岩波書店, 서론 vii.(William E. Connolly, 1991 *Identity/Difference Democratic Negotiations of Political Paradox*,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다. 우선 서재필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형성이 자기와 타자, 그리고 조선의 대내 외적 상황과 그 변화되는 어떤 상관 관계에 있었는지를 해명한다. 다음으로 서재필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상극을 이해하기 위하여 『독립신문』(1896년 4월 창간, 1899년 12월 폐간)의 논설을 분석, 고찰한다.<sup>(6)</sup> 이는 '조선관 - 자존과 조선 멸시'와 '자주 독립 - 민권과 국권'이란 두 가지 테마로 나누어진다. 마지막으로 서재필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에 나타난 근대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 2.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형성

서재필은 청년기부터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다.<sup>(7)</sup> 예를 들어 청년 서재필은 김옥균(1851-94), 박영효(1861-1939), 서광범(1859-97) 등 급진개화파(개화당)와 교체하였다.<sup>(8)</sup> 그리고 일본 유학(1883.5~1884.6)을 거친 후 갑신정변(1884.12)에 참여했으나 실패하여 일본에 망명했다. 그 후 1885년 5월에 미국으로 건너가 1892년 3월에 의학사(M.D.) 학위를 받았다. 그 사이 1890년 6월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재필은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형성·변용시켜 나갔다. 그리고 때로 '동일성 위기'에 봉착하고 '동일성 혼란'과 그에 따른 자기상의 퇴행적 분열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의 자기 내부에선 자기타자화와 타자자기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 1) 개화당 참여와 일본 유학

1882년 서재필은 18세로 과거(科擧) 문과에 합격하였다. 이는 당연히 유학(儒學) 수업의 결과였다. 따라서 유교 사상은 그의 아이덴티티의 토대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후일 그는 『독립신문』 논설에서 유교를 비판하고 서양 근대의 '실상(實狀) 학문' 교육을 주장 하게 된다. 더불어 서양 근대의 문명, 사상, 학술을 계몽하는 한편 인민과 국가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게 된다. 그의 평생 목표는 자주독립. 이것은 다름아닌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확립을 표상한다.

(6)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독립신문』에는 한글판과 영문판의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 논설이 실려 있다. 그러나 본고에선 영문판 논설을 분석,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둘째로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동안 쓴 (한글판) 논설이 모두 그가 쓴 것이란 보증을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쓴 논설이랄지라도 거기엔 서재필의 의향이 투영되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독립신문』 또는 서재필이 창립한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 업적은 상당히 많다. 단 본고는 이들 연구 업적 중 서술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검토, 활용하는데 그친다.

(7) 서재필의 생애, 사상에 관해서는 이정식, 2003 『구한말의 개혁·독립투사 서재필』,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광린, 1979 『서재필의 개화사상』 『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참조.

(8) 개화당에 관해서는 이광린, 1973 『개화당연구』, 일조각 참조.

서재필은 김옥균 등이 1879년경에 결성한 개화당에 참여하였다. 이에 대해 서재필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sup>9)</sup>

일본의 외교사절이 조선에 오기 전,<sup>10)</sup> 수년 동안 몇 명의 조선의 지식분재개화당은 일본을 왕래하고 일본어를 잘하는 현명한 불교 승려를 통해 일본과 비밀리에 통신하고 있었다. 이 승려는 일본에서 서구 문명에 관한 수많은 서적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들개화당은 그가 가져다 준 서적을 탐독하고 (...중략...) 해외 사정을 서서히 알게 되었다. 이 젊은 지식분자 일당의 지도자는 김옥균이었다.

위에서 언급된 승려의 이름은 이동인이다. 이동인은 1870년대 후반부터 - 그가 암살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알려진 - 1881년 4월까지 수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 이는 김옥균 등 개화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동인은 그들에게 해외 서적과 지식, 정보를 전해 주었다.<sup>11)</sup>

서재필은 만년에 “[이동인이 가져온 책을 읽고 세계대세를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타국과 마찬가지로 인민의 권리를 세워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회상하고 있다.<sup>12)</sup> 이는 그의 주된 관심이 ‘인민의 권리’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의 ‘인민의 권리를 세움’이란 목표는 곧 조선의 ‘자주독립’으로 이어진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의 추론이긴 하나, 이동인이 가져온 서적들 속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의 『西洋事情』(初編1866, 外編1868, 二編1870), 『學問のすずめ』(1872~76), 『文明論之概略』(1875) 등 저작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동인은 일본 체재 중 후쿠자와와 친하게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3)</sup> 후쿠자와는 이들 저작을 통해 서양 근대의 권리(‘通義’) 개념을 수용하고 민권론을 전개하고 있었다.<sup>14)</sup> 이를 통해 서재필이 ‘인민의 권리를 세워야

9) 서재필 「회고 갑신정변」(이정식, 『구한말의 개혁·독립투사 서재필』의 「부록2」, 396면에서 재인용). 「회고 갑신정변」은 서재필이 1934년(만70세)에 『동아일보』에 기고한 영문 원고를 번역해서 1935년 1월 1일자와 2일자에 연재한 것이다.

10) 여기서 “일본의 외교사절이 조선에 오기전”이란 달리 말해서 ‘일본 공사가 한성(漢城; 서울)에 주경(駐京)하기 전’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876년 2월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 정부는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實; 1842-1917)를 조선 공사로 파견하여 주경 문제를 교섭케 했다. 그러나 교섭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결국 하나부사 공사의 주경이 인정된 것은 1880년 12월의 일이었다. 『고종실록』 고종17(1880)년 11월 26일조 참조.

11) 이동인의 활약에 관해서는 이광린, 「개화승 이동인」 『개화당연구』; 韓哲曦, 1987 「開化派と李 東仁と東本願寺」 『朝鮮民族運動史研究』4, 靑丘文庫; 琴秉洞, 1991 『金玉均と日本—その滯日の軌跡』, 緑蔭書房, 32-39면; 金鳳珍, 2004 「E. S. モースの日本滯在と朝鮮人との出会い」 『社会システム研究』2, 北九州市立大学大学院社会システム研究科, 32-35면 등 참조.

12) 김도태, 1972 『서재필박사 자서전』, 을유문화사, 85면. 이 자서전은 김도태가 해방 후인 1948년(서재필 만84세)에 일시 귀국한 서재필과 여러 번 면담한 내용을 재구성해 펴낸 것이다. 거기엔 서재필 자신의 회상은 상당히 적고 또한 그 회상에도 오류가 있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13) 이에 관해서는 石河幹明, 1932 『福澤諭吉傳』3, 岩波書店, 288면 참조.

한다'는 생각을 품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단 서재필이 권리 관념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수용한 것은 후술하는 바 미국 유학시절의 일이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덧붙여 후쿠자와의 저작은 또한 서재필의 '세계대세 짐작'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이로써 후쿠자와의 저작에 보이는 '야만·반개(半開)·문명'이란 세계 삼분론이나 문명개화론, 그리고 탈아 의식과 함께 아시아 특히 청국 멸시관 등도 일정 정도 서재필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달리 말해 서재필의 사고양식 안에 후쿠자와의 문명주의나 구미중심적 근대주의, 그리고 오리엔탈리즘 등이 침투되어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무튼 서재필은 후일 일본에 유학하여 후쿠자와의 가르침을 직접 받게 된다.

청년기의 서재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김옥균이었다. 이를테면 서재필에게 김옥균은 자기화하고 싶은 타자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서재필이 묘사한 김옥균의 상(像)은 일종의 자화상과도 같은 것이었다(이하 이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서·김〉으로 표기한다). 그는 김옥균을 “커다란 인격자, 진정한 애국자”라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sup>15)</sup>

그는 조국이 청국의 종주권 하에 있다는 굴욕감을 참지 못하여, 어찌하면 이 치욕에서 벗어나 조선도 세계 각국 속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일원이 될까하고 밤낮으로 노심초사했던 것이다. 그는 (…중략…)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고 조선을 힘있는 현대적 국가로 만들려고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신지식을 주입하고 신기술을 채용함으로써 정부나 사회 일반의 구투인습(舊套因習)을 일변시켜야 할 필요를 확실히 느꼈다. 그는 구미 문명이 (…중략…) 열국(列國)들이 수백년 동안 경쟁적으로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일본은 한 세대 동안에 그것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연히 일본을 모델로 삼고자 백방으로 노력한 것이었다.

여기서 〈서·김〉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형성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서·김〉의 굴욕감은 청국에 대한 발분(發憤)을 일으킴으로써 적대, 멸시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다시 〈서·김〉의 내셔널한 자존을 자극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굴욕감의 화살은 청국에 의존하는 상황을 초래한 자국으로 향하여 거기서 자국 멸시관 또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자존과 자기 멸시가 착종하는 그 틈새에 타자 동경(憧憬)이 찾아든다. 일본 동경은 그러한 표현이다. 물론 〈서·김〉의 일본 동경은 일본에 대한 경쟁 의식이나 경계 의식을 포함한다.

서재필은 김옥균의 권유로 일본에 유학하였다.<sup>16)</sup> 그 목적은 “국방 충실을 위해 정예한 군대를

14) 예컨대 1976 『學問のすずめ』, 일조각 에는 “天は人の上に人を造らず”(제1편), “人は同等なる事”(제2편), “國は同等なる事,” “一身獨立して一國獨立する事”(제3편) 등이 있는데 그 요지는 ‘독립자존’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재필은 『독립신문』 논설을 통해 ‘자주독립’을 주장했던 바 이는 후쿠자와의 ‘독립자존’의 모방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광린, 1979 「서재필의 『독립신문』 간행에 대하여」 『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 정진석, 2001 「한국의 볼테르 서재필과 『독립신문』」 『언론과 한국근대사』, 커뮤니케이션북스 등 참조.

15) 서재필, 「회고 갑신정변」, 앞의 책, 396-397면.

육성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함이었다.<sup>17)</sup> 1883년 5월 서재필 등 17명의 조선인 청년들이 도쿄에 도착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육군 도야마(戶山) 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에서 후쿠자와의 지도를 받았다. 당시 후쿠자와는 『通俗國權論』(1878), 『通俗國權論二編』(1879), 『時事小言』(1880) 등 저작과 『時事新報』(1882년 창간)의 논설을 통해 국권 확장론(=아시아 진출론)을 주장하고 있었다.<sup>18)</sup>

서재필 등 유학생들은 일요일마다 도쿄 쓰키지(築地)에 체류하고 있던 김옥균을 방문했다고 한다.<sup>19)</sup> 그 때마다 김옥균은 “일본이 동방의 영국이 되고자 하니, 우리는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프랑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노라고 서재필은 회고하고 있다.<sup>20)</sup> 김옥균의 이같은 발언은 그의 대국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는 일본에 대한 경쟁·경계 의식의 표명이라 할 것이다. 김옥균은 일본을 동경했는지라도 다른 한편으로 당시 일본에 퍼지기 시작한 제국주의는 곧 조선에 대한 위협임을 의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김옥균은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옥균은 일본을 처음 방문했을 때(1882년 3월~7월)부터 ‘삼화(三和) 즉 조·청·일 삼국의 연대를 주창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조선보다 강대국이었던 청일 양국과 적대적 경쟁보다는 우호적 연대가 유리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삼화’론은 평생 김옥균을 따라다니게 되었지만, 그 이상은 이상대로 있었다고 해도 당시 현실에서는 조선에 대한 청국의 간섭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이같은 김옥균의 ‘삼화론에 대해 서재필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단 후술하겠지만 『독립신문』 논설에도 - 서재필의 논설은 아니나 - 삼국 연대론이 등장한다.

## 2) 갑신정변과 일본 망명

1884년 7월 서재필 등 유학생들은 약 13개월 동안의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보다 약 2개월 전에 귀국한 김옥균은 근대식 사관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맞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16) 서재필의 일본 유학에 관해서는 박영준, 2003 「서재필과 일본 군사유학」 『서재필과 그 시대』, 서재필 기념회 참조.

17) 서재필, 「회고 갑신정변」, 앞의 책, 399면.

18) 후쿠자와의 국권 확장론은 자타(自他)와 내외의 분별, 권력 정치, 전쟁 긍정, 국가 평등과 국제 정의(道理, 公道)의 부정, 약육강식적 경쟁 등의 논의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金鳳珍, 2004 『東アジア「開明」知識人の思惟空間 鄭觀應・福澤諭吉・俞吉濬の比較研究』, 九州大學出版會, 141-143면.

19) 김옥균은 1883년 6월 15일에 나가사키(長崎)에 도착, 6월말에 도쿄에 들어가 9월초에는 쓰키지에 숙소를 옮긴 뒤 이듬해 84년 5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체재했다(제3차 방일). 그 동안의 김옥균의 활동에 관해서는 琴秉東, 『金玉均と日本』, 109-137면 참조.

20) 서재필, 「회고 갑신정변」, 앞의 책, 399면.

이 계획은 고종의 승낙을 얻었지만 청국 측의 압력과 정부내 친청 세력의 반대로 결국 실패로 끝난다.<sup>21)</sup> 같은 해 12월 4일 김옥균 등 개화당은 일본 공사관과 일본군의 협력을 얻어 정변을 일으키고 개혁 정부를 수립하였다(갑신정변).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 뒤인 6일에 청국군의 공격을 받아 정변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서재필은 김옥균 등 동지와 함께 일본으로 망명한다.

후일 서재필은 정변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그 계획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대하는 일반 민중의 무지몰각(無知沒覺)에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다.<sup>22)</sup> 그러나 정변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서재필이 말한 ‘민중의 무지몰각’이라기 보다는 역시 청국군의 공격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단 서재필의 ‘민중의 무지몰각’이란 말에는 그의 민중관이 서려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거기엔 그의 유교적 관념에 의한 우민관과 서구문명주의에 의해 형성된 ‘문명인의 사명’과 같은 의식이 중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후 서재필은 이러한 ‘민중의 무지몰각’을 타파하기 위한 교육, 계몽을 중시하고 또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갑신정변의 실패와 일본 망명은 서재필의 ‘동일성 위기/혼란’을 가속화시켰음에 틀림 없다. 정변 당시 많은 동지들이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정변 후 조선 정부는 남아 있던 정변 참가자는 물론 정변 주도자의 가족들까지도 처형하였다. 서재필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변 실패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후쿠자와는 「朝鮮獨立黨の處刑」이란 제목으로 두 번의 논설을 연재하였다(『時事新報』1885년 2월 23일자와 26일자).<sup>23)</sup>

우선 첫번째 논설에서는 “일본의 인민은 오늘날 문명을 만나 치란(治亂)에 있어 사람을 미구 죽이는 도륙(屠戮)의 독해(毒害)를 보지 않는다. (… 중략 …) 조선을 보면 그 야만스런 참상 (… 중략 …) 유교주의에 심취되어 이미 정신의 독립”을 잃고 “근년에는 내치외교의 정사(政事)에 지나(支那: 청국)의 간섭을 받아 독립의 국체를 잃고 (… 중략 …) 자신을 모르고 자국을 모르고 날마다 달마다 퇴보하면서 더욱더 야만으로 향하는 자와 같다.”고 서술한다.<sup>24)</sup> 여기엔 ‘일본=문명, 조선=야만’이란 이항대립적 도식과 조선 멸시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후쿠자와의 조선 멸시는 정변 참가자와 주도자 가족을 처형한 사실을 전하는 두번째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가속화된다. “인간 사파(娑婆)세계의 지옥이 조선 경성(京城)에서 출현했다. 나는 이 나라를 지목하여 야만이라 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요마악귀(妖魔惡鬼)의 지옥국이라 말하기를 바라는 자이다. 그래서 이 지옥국 당국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사대당 정부의 관리이며 그 후건의 실력을 지닌 자는 바로 지나인(支那人)”(『福澤諭吉 全集』제 10권, 228쪽)이라고.

이같은 후쿠자와의 논설을 서재필, 김옥균 등 망명객이 읽었다면 그들은 공감과 반감이 착중

21) 이광린, 「서재필의 개화사상」 『한국개회사상연구』, 102-103면 참조.

22) 서재필, 「회고 갑신정변」, 앞의 책, 401면.

23) 서재필이나 김옥균 등 망명객들은 일본 체재 중 위에서 언급한 후쿠자와의 논설을 포함한 기타 논설을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4) 慶應義塾編纂, 1960 『福澤諭吉全集』10, 岩波書店, 223면.

된 복잡한 심경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멸시와 자존, 자국 증오와 애국심의 상극에 시달렸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의 자기 멸시는 자존의 뒷면이며 자국 증오는 애국심의 뒷면이었으리라. 당시 그들의 심경에서 조선은 - 청국도 - 주로 멸시와 증오의 대상으로 차이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동일성 위기/확산'이 가속화되면서 그들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는 표류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서재필은 일본에서의 망명 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sup>25)</sup>

우리들이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쿄에 도착했을 때 우리들 일행은 돈도 없고 숙소도 없고 친구도 없었다. 일본인은 우리들을 누추한 자로 대하고(treated us shabbily) 가끔 적대하기도 했다. 나는 수개월 간의 일본 체류를 통해 겪은 끔찍한 경험(terrible experience)을 잊을 수가 없다. (... 중략 ...) 요코하마(橫濱)에 살고 있던 몇명의 미국인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 망명생활의 체험은 서재필의 일본관을 이전의 동경에서 혐오로 바뀌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때 만난 '몇명의 미국인'은 서재필을 미국 동경으로 이끌었던 모양이다.<sup>26)</sup> 그리하여 서재필은 박영효, 서광범 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1885년 5월). 후에 서재필은 미국에 가게 된 이유로 "조선인의 행위에 분개하고 또 일본인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토로하고 있다.<sup>27)</sup>

후쿠자와는 서재필이 미국으로 건너가기 두어달 전에 「脫亞論」(『時事新報』1885년 3월 9일자 논설)을 발표했다. 그 결론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의 개명(開明)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흥하게 할 여유가 없다. 오히려 그 무리(伍)를 벗어나 서양의 문명국과 진퇴를 함께 하고 지나와 조선을 대하는 법도 (... 중략 ...) 바로 서양인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처분해야만 한다. (... 중략 ...) 아시아 동방의 악우(惡友)를 사절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선언, 여기서 '탈아'는 '침아(侵亞)'를 함의한다.<sup>28)</sup> 이 또한 서재필, 김옥균 등 망명객들은 공감과 반감이 착종된 복잡한 심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이다.

25) Philip Jaisohn, M. D., 1999 *My Days in Korea and Other Essays*, edited by Sun-pyo Hong, Yonsei University Press, p. 22-23. Philip Jaisohn은 서재필의 미국 이름. 이 저작은 1938년에 쓰여졌다.

26) 여기 등장한 '몇명의 미국인'에 관해서는 이정식, 『구한말의 개혁·독립투사 서재필』, 52-54면. 참조.

27) Philip Jaisohn, M. D., *My Days in Korea and Other Essays*, p. 23.

28) 후쿠자와의 탈아론의 실상에 관해서는 줄고, 『東アジア「開明」知識人の思惟空間鄭觀應·福澤諭吉·兪吉濬の比較研究』, 144-157면. 참조.



### 3) 미국 유학과 귀화

서재필, 박영효, 서광범 등은 1885년 6월에 샌프랜시스코에 도착했다. 윤치호는 그 당시의 사정을 후에 서재필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적고 있다.

샌프랜시스코에 도착하고 나서 우리들은 고급 아파트를 빌려 훌륭한 생활을 하면서 같은 시의 유력자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몇명의 저명인을 초대하고 접대하고 나서 그들에게 물질적 원조를 요청했다. 이런 책략은 적어도 처음엔 공을 이루었다. 다만 그것이 오래 갈리가 없었다. 게다가 박영효는 콧대 높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김옥균과 같은 상급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참을 수 없어서 나는 그들 곁을 떠나 어떤 아일랜드인이 경영하는 가구점에 취직했다. 그 후 나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윤치호 일기』 1897년 11월 30일자: 원문은 영어, 이하 같음)

여기서 서재필은 다른 망명객들 곁을 떠나 미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함으로써 윤치호에게 자신의 자립 정신을 어필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박영효는 ‘콧대 높은 행동’을 하는, 따라서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은 서재필에게는 이를테면 ‘탈조선입미국(脫朝鮮入美國)’을 함의한다. 이때부터 그의 〈자기(조선) 타자화〉와 〈타자(미국) 자기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재필 자신은 「滯美 50年」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sup>29)</sup> “나는 어느 한 친절한 기독교인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일자리도 얻고 영어공부도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는 안 해본 노동이 없었다.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일이 어느 가구점의 광고지를 이집 저집의 문전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었다.”(403쪽)라고. 이리하여 미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던 서재필에게 “미국 동부로부터 한 구호의 천사가 찾아들었다.”고 한다. 이 ‘구호의 천사’ 이름은 홀렌백(John Wells Hollenback)으로 그는 서재필에게 “만약 자기 고향인 펜실베이니아로 같이 간다면 여비는 물론 모든 학비를 제공하겠다.”(404쪽)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sup>30)</sup>

이같은 행운을 얻은 서재필은 홀렌백과 동행하여 윌크스베러(Wilkes-Barre)시로 갔다. 거기서 1886년 9월 서재필은 홀렌백이 관여하고 있던 사립학교(중고등학교)인 해리 힐만 아카데미(Harry Hillman Academy)에 입학하여 고교 3년간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다.<sup>31)</sup> 3년간의 학창 생활에 관하여 서재필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나는 그 학교의 교장택에 기숙했는데 그 집에 동거

29) 서재필 「체미 50년」(이정식, 『구한말의 개혁·독립투사 서재필』의 「부록2」 재수록). 이 「체미 50년」은 「회고 갑신정변」과 마찬가지로 서재필이 1934년에 『동아일보』에 기고한 영문원고로서 그 한글 번역이 1935년 1월 3일자와 4일자에 연재된 것이다.

30) 홀렌백의 경력에 관해서는 이정식, 『구한말의 개혁·독립투사 서재필』, 67면 참조.

31) 서재필의 3년간 학창 생활에 관해서는 이정식, 『구한말의 개혁·독립투사 서재필』, 81-104면 참조.

하고 있던 교장의 장인되는 사람으로부터 미국 생활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는 특전을 누렸다. 그는 퇴직 법관으로 주 법원과 연방 법원에서 오랫동안 법관으로 일한 분이었다. 그는 밤마다 입법과 법정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체미 50년」, 404쪽)라고. 그 영향도 컸으리라. 후에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통해 정부와 인민에 의한 법률 준수의 필요성을 거듭 계몽하게 된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후 서재필은 역경과 전기(轉機)를 맞이했다. 홀렌백은 그에게 “7년간의 훈련을 받고 조선에 선교하러” 갈 것을 조건으로 “대학과 신학교에 다닐 비용을 기꺼이 내주겠다.”고 제안하였다(「체미 50년」, 405쪽). 그러나 서재필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1884년 갑신정변에 가담했던 이유로 나를 체포하려 들었고, 또 7년 후에 과연 홀렌백씨의 기대대로 내가 좋은 선교사가 되기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하게 될는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같은 쪽). 이에 대해 홀렌백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도울 수 없다.”고 냉정한 태도로 대답했다고 한다.<sup>32)</sup>

이 같은 홀렌백의 냉정에 서재필은 낙담했을 것이다. 다만 거기서 다시 일어나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서재필은 스스로의 냉정과 자존을 단련해 나갔으리라. 그 때문이거나, 또는 그의 개인적 성격일지도 모르나 서재필은 때로 냉정과 자존의 도를 넘은 차디찬 거만함을 주변 인물에게 보여주기도 했던 모양이다. 이에 관해서는 윤치호의 다음과 같은 서재필에 대한 묘사와 비평이 참조된다. “서재필 박사는 1884년의 갑신정변 후 모욕당하니 자살을 택한 전(前)부인의 성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 그가 한성에 돌아온 [1895년 12월] 후 늙고 가난한 장인 어른이 그를 방문했을 때 이 사위는 장인에게 2달러를 건네 주었으나 장인은 이를 받지 않았다. (... 중략 ...) 이런 이야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과연 서재필은 차디차고 거만한(cold and arrogant) 사람이다.”(『윤치호 일기』, 1898년 1월 15일자) 이 같은 서재필의 차디찬 거만함은 〈자기(조선) 타자화〉를 표상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자. 서재필은 1888년 여름에 “조지 워싱턴 대학 야간부에 다닐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워싱턴으로 갔다.”(「체미 50년」, 405쪽)고 한다. 거기서 서재필은 존 빌링스(Dr. John Shaw Billings)라는 군의관을 만나 그의 알선으로 육군 군위감 관내 도서관에 취직했고, 그런 한편으로 시내에 있는 코코란 대학(Corcoran School of Science and the Columbian University; 야간학교)에 등록, 1년간의 예비교육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1889년 가을부터 같은 대학의 의대에 입학, 약 2년반의 과정을 마치고 1892년 3월에 의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사이 서재필은 1890년 6월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이는 그의 〈자기(조선) 타자화〉의 달성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32) 김도태, 『서재필박사 자서전』, 185면 ; Channing Liem, 1984 *Philip Jaisohn*, Philadelphia: Philip Jaisohn Foundation, p. 112.

그 후 1892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재필은 워싱턴 시내에 있는 가필드(Garfield)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의사 면허증을 취득했다고 한다.<sup>33)</sup> 이로써 그는 월급 100달러의 어떤 의료 관련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윤치호는 기록하고 있다(『윤치호 일기』, 1893년 8월 14일자) 이 같이 의사 면허증을 취득했고 월급 100달러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재필은 1894년 6월 24일에 암스트롱(Muriel Armstrong)과 결혼한다.<sup>34)</sup> 이는 서재필의 미국인 아이덴티티 확립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것과 조선인 아이덴티티와의 상극을 배태하는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 3.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상극

1894년 5월초 조선에서는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청국에 출병을 요청, 6월 5일 청국군이 인천에 도착했다. 이를 견제하고 조선에서 우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일본도 군대를 파병하여 6월 9일 인천에 도착했다. 그리고 일본군이 7월 23일에 조선 왕국을 점령하자 이를 계기로 청일 양국은 교전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 하에서 김홍집(1842-96), 어윤중(1848-96) 등 온건 개화파와 유길준(1856-1914)을 중심으로 한 신진 개화파의 연합 세력은 개혁 정부를 구성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그 추진 기구인 군국기무처(7월 27일 설립, 10월 29일 폐지)는 의안(議案) 1호에서 '대외독립, 자주외교'를 표방하였다.

1894년 12월 개혁 정부는 박영효와 서광범을 정권에 복귀시켜 각각 내무대신과 법무대신에 임명했다. 그리고 이듬해 95년 3월, 고인이 된 김옥균은 물론 서재필을 포함한 갑신정변 관계자들을 모두 사면했다.<sup>35)</sup> 같은 해 4월 17일, 청일 양국은 시모노세키(下關) 조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3일에 러시아, 독일, 프랑스 삼국은 일본 정부에게 요동 반도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삼국간섭을 계기로 박영효는 일본측 간섭을 배제하는 한편 내각의 실권을 장악했다. 이어서 궁중 세력을 견제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7월 7일에 또 다시 망명하게 되었다.

그 사이인 95년 6월에 박영효는 서재필에게 귀국을 요청하는 동시에 그를 외무협관(外務協辦)에 임명했다. 이때 서재필은 귀국, 취임을 거절하였다. 그 이유에 관해 서재필은 "나의 옛 친구 박영효, 서광범, 윤치호, 유길준 제씨는 새 내각의 각료가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새 내각은 임금의 신임을 잃었고, 1884년 때와 똑같이 황제 측근의 궤내 도당과 반목 불화하기에 이르렀다는

33) 이정식, 앞의 책, 120면.

34) 자세한 것은 이정식, 앞의 책, 123-125면 참조.

35) 김옥균은 1894년 3월 28일, 상하이의 미국 조계에 있던 호텔인 동화양행(東和洋行)에서 암살되었다. 자세한 것은 琴乘洞, 『金玉均と日本—その滯日の軌跡』의 5장 참조.

것을 나는 멀리서 들었다.”(『체미 50년』, 405쪽)고 회상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위싱턴에 온 박영효의 권유에 마음을 바꾼 서재필은 마침내 귀국을 결심하고 12월말에 조선에 들어온다.

1895년 10월 8일 당시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1846-1926)의 지휘에 의한 명성 황후(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개혁 정부의 마지막 내각인 ‘김홍집·유길준 내각’이 성립되었지만 시해 사건은 이 내각의 정통성을 근거로부터 무너뜨렸다. 궁중과 내각 사이에는 불신과 함께 대항 세력과 파벌이 생겨났고, 재야에선 지식인과 민중의 반발과 의병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정국 불안 속에서 내각은 연명에 고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의 조선 상황을 서재필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고종께서는 김홍집, 유길준 등으로 조직된 새 정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면으로는 일본 공관이 있었던 왜성대(倭城臺)의 일본 공사가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구 각료들이 피살될까 두려워 미국 공관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다. 나는 조야(朝野)를 불문하고 서로 모해하고 서로 살벌하는모습, 옛날과 조금도 다른없는 한국적 광경을 목도하였다.(『체미 50년』, 406쪽)

이 인용문 안의 ‘조선적 광경’이란 말은 서재필이 조선을 차이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서재필에게 조선은 오히려 <타자>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서재필은 “상심낙담한 끝에 변복을 하고 다음 선편으로 미국에 다시 건너 가려고” 했으나 “유길준은 백방으로 나를 만류하고 이런 저런 직임을 나에게 권했다. 그래서 나는 (... 중략 ...) 벼슬을 하지 않고 민중 교육을 위하여 신문을 발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을 서민이 알게 하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나를 일깨워 주는 일이나 해 보겠다고 했다.” 유씨는 나의 제의를 쾌락하고 재정적으로 나를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체미 50년』, 406쪽) 이리하여 ‘김홍집·유길준 내각’은 서재필에게 신문 발간의 보조금을 주는 동시에 그를 중추원(1895년 3월 설립된 정책 자문기관) 고문에 임명 하고 월급 300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겠다고 계약했다.

그러나 1896년 2월 11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한 ‘이관파천’(1897년 2월 20일에 환궁)에 의해 ‘김홍집·유길준 내각’은 붕괴되었다. 총리대신 김홍집을 비롯한 많은 각료와 관료들이 죽음을 당하고 유길준 등은 피신한 뒤에 일본에 망명했다. 그리고 새 내각(‘박정양 내각’)을 성립 되면서 ‘친러·친미적’ 관료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는 이른바 ‘친미 개화파의 내각’으로서 이후 조선의 개혁을 이끌게 된다.<sup>36)</sup> 한편 이를 계기로 서구 열강과 일본은 조선의 각종 이권획득을 위해 다투게 된다.

박정양 내각은 “전임 내각과 약속한 신문 경영을 거부하지는 않았다.”(『체미 50년』, 406쪽)고

36) 이들 ‘친러·친미적’ 관료들의 형성, 집권과 개혁 활동, 그리고 이들에 의한 독립협회의 창립 등에 관해서는 한철호, 1998 『친미 개화파 연구』, 국학자료원 참조 바람.

한다. 그리하여 서재필은 1896년 4월 7일에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같은 해 7월에는 독립협회를 결성(1898년 12월 25일에 해산)하고 개화·개혁 사상의 보급과 민권·국권 사상의 계몽에 주력하게 되었다.<sup>37)</sup> 그 후 약 2년간 서재필은 이르면 조선의 개화·개혁과 민권·국권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그의 운동은 국내·국외적 갈등과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sup>38)</sup> 이를 견디지 못한 서재필은 결국 1898년 5월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만다.

서재필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요인은 그의 활동이 고종과 정부의 반감을 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요인에는 서재필의 사상과 대외관에 보이는 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상극이란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고 본다. 이 문제를 그의 조선관과 자주독립 사상으로 나누어 『독립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sup>39)</sup>

### 1) 조선관 - 자존과 조선 멸시

서재필은 『독립신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기 평가하고 있다. “세상에서 큰 호평을 얻어 사회 각 계층에서 널리 읽혔다. 공정(公正)을 도모하려던 나는 불편부당(不偏不黨)주의를 취하고 어떤 쪽에도 경사되지 않았다. 나는 친러, 친일을 불문하고 양쪽의 정객들을 비난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국세력의 괴뢰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 중략 …) ‘오직 조선의 민리민복(民利民福)만을 위해서 일하고 남의 곳에 놀아나지 않음이 위정자의 의무라는 것을 역설하였다.’(『체미 50년』, 407쪽)라고. 이러한 그의 평가는 상당한 정도 사실이긴 하나 다만 거기엔 비판적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우선 『독립신문』이 ‘사회 각 계층에게 널리 읽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립신문』을 각 계층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공정, 불편부당’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서재필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셋째로 ‘친러, 친일’을 비난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의 대외관은 제국주의·식민지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이 약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그의 ‘민권, 독립’ 사상이 강고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그와 더불어 차이화·타자화된 조선(인)에 대한 멸시나 편견 역시 강고했다.

37) 독립협회의 결성과 활동에 관해서는 신용하, 『독립협회 연구』; 姜在彦, 1973 『近代朝鮮變革思想』, 日本評論社の 2부2장; 이선근, 1978 『한국현대편』, 을유문화사의 2편2장; 유영렬, 1997 『대한제국기 민족운동』, 일조각의 1편 등을 참조하기 바람.

38) 서재필이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통해 벌인 활동은 조선의 각 계층에 어떤영향을 미쳤으며 또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소개한 연구서나 주진오, 1997 『해산 전후 독립협회 활동에 대한 각 계층의 반응 - 황실과 언론을 중심으로』 『실학사상연구』9 등을 참조하기 바람.

39) 『독립신문』의 논설을 인용할 때 필요한 경우 현대문에 가깝게 수정한다. 또 인용문에는 발간 날짜만 표기하기로 한다.

당시 서재필의 지아 속에서 조선은 '현실의 후진국 조선'과 '이상적 문명국 조선'이란 두 갈래로 분열되어 있었다. 따라서 현실의 조선에 대해 그는 차이에 의한 배제와 억압을 행한다. 그리하여 서재필의 조선관에는 그의 문명인으로서의 자존과 존대로 표상되는 (조선형) 오리엔탈리즘의 요소가 드러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튼 윤치호는 서재필이 어떻게 조선을 차이화하고 있었는가의 일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서재필 박사는 만사를 명령하고 싶어하는 야심적 인간이다. 그는 또한 정력적이지 결정력있고 방심하지 않는 인물이다. 확실히 그는 조선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인물이다. 그는 대신과 차관을 그 젊고 늙음에 상관없이 권위주의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품행이 좋지 않은 어린애를 훈계하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대부분은 서재필의 격식에 어긋나는 취급 방식에 노여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나 미국(Uncle Sam's flag)의 보호하에 있는 서재필 앞에서 기가 꺾이지 않을 수 없었다. (『윤치호일기』, 1897년 8월 8일자)

여기 보이는 서재필의 언행은 그가 부렸던 자존과 존대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녔던 서재필에게 조선의 정치가, 관료에 대한 예의, 격식 따위는 차이화의 대상이었다. 이를테면 <조선>은 그의 멸시 대상이었던 것이다.

『독립신문』의 논설엔 서재필의 글이 아닌 것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그 논설에는 서재필의 의향이 담겨 있을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무튼 『독립신문』의 논설엔 <조선>을 멸시하는 언설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최초의 예로 1896년 4월 9일자 논설을 보자.

현재 조선은 강하지도 않고 부요(富饒)하지도 않으며 인민은 극도의 도탄(塗炭)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선인에 위국심(爲國心)이 없고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고 같은 나라의 인민을 해치려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 중략 ...) 나라 또한 점점 약해졌다. (... 중략 ...) 참으로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조선>은 멸시와 동시에 비판과 애처로움의 대상이다. 서재필의 조선 멸시는 필경 그의 근대문명주의에 입각한 조선관 내지 조선 비판에서 파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일정한 정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거기엔 또한 문명인 서재필의 시각에서 파생된 편견이나 오리엔탈리즘의 요소가 담겨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에게 있어 조선은 문명국이 되지 못하는 한 어디까지나 멸시를 받아 마땅한 나라였던 것이다.

물론 서재필의 조선 멸시에 담겨진 목적은 조선인을 분발시켜 자존과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계발하고 이로써 자주독립의 문명국 조선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그는 같은 논설에서

“서로 돕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조선은 외국 인민에게 강해 보인다. 또한 조선 인민도 다른 사람 만큼 대우받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의 조선 멸시는 1896년 8월 1일자 논설에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구미인의 재능과 학문을 배우려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비웃음과 모욕을 받아도 발분하여 분발하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가난과 무지를 즐긴다.”라고. 그리하여 “어째서 조선인은 옛사람들이 범한 잘못(前轍)을 고치고 문명진보하여 의연히 세계를 향해 ‘나도 너에게 뒤떨어지지 않은 사람이다’라 말하고 행동하려 하질 않는가.”라고 묻고 있다.

그 후의 논설에서도 서재필의 조선 멸시를 보이는 표현은 거듭 등장한다. 단 멸시해야 할 〈조선〉의 범주는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비도(匪徒)’(1897. 2. 6),<sup>40)</sup> ‘조선 병(=무학문, 무교육)’(1897. 2. 13), ‘구습’(1897. 3. 6), ‘동학당, 의병’(1897. 8. 12), ‘자국 역사의 무교육’(1898. 1.27), ‘혼인 풍습’(1898. 2. 12) 등이다. 그리고 많은 논설에서 보이는 유교 비판이나 조선인과 조선 정부의 결점, 실책 등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서재필의 생애 목표는 문명국 조선을 만들어서 자주독립을 확립하는 일이다. 이 목표는 물론 조선 멸시만으로 달성될 리 없다. 이를 위해선 조선인의 자존과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계발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조선인의 자존과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기반이 될 만한 것 즉 ‘조선의 좋은 것이나 자랑할 만한 것’을 계발하고자 시도한다.

그 중 하나는 ‘국문’ 곧 한글이었다. 그는 1897년 8월 5일자 논설에서 “자기 나라에 좋으면 그것은 부디 버리지 말고 특별히 길러야” 한다면서 국문은 “좋은 것”이라 말한다. 이어서 “조선의 좋은 글을 버리고 (... 중략 ...) 중국글을 배우고 그 문장을 숭상”해 왔음을 비판한다. 또 하나는 조선 역사와 그 역사상 위인이었다. 예컨대 1898년 3월 8일자 논설은 “수백년 동안 한(漢), 당, 명의 사기(史記)만 보아 의기(義氣)와 용맹과 혈기를 모두 잃어”버렸음을 비판하고, 앞으로 “대한의 사기 속의 유명한 충신, 열사 를 자세히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서재필은 국문이나 국사, 위인을 조선인의 자존과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기반으로 계발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학문에 의뢰해 왔던 조선의 성향을 비판하고 청국에 대한 자존과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계발한다는 점에 차중했던 바 그 외의 〈타자〉에 대해 자국 문화/문명의 독자성을 주장한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본다. 그런 뜻에서 그가 보여준 조선 전통과 역사에 대한 관심은 ‘맹아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그 때문에 조선의 전통을 ‘발명’하거나 역사를 중시하려는 그의 의지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sup>41)</sup> 이는 서재필의 자기 인식에 구미중심적 근대주의나 오리엔탈리즘이 강하게 깔려

40) 여기서 ‘비도’란 같은 논설에서 말하는 “직업이 없는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1) 조선의 전통을 ‘발명’하거나 역사를 중시하고 또한 이를 조선인의 자존과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계발에 활용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은 『독립신문』보다는 오히려 개신 유학자 그룹을 중심으로 창간된 『황성신문』(1898년 9월 창간, 1910년 8월 한일강제합병 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매수되어 『한성신문』으

있었고 그것이 또한 자국 전통에 대한 관심을 배제 내지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기할 것은 서재필의 ‘조선인=우등인종’론이다. 예컨대 1896년 5월 2일자 논설에선 “조선인을 동양의 각국 사람과 비하면 청국인보다는 총명하고 근면하며 일본인보다는 크고 뼈대가 굵은 체구이다. 만약 우리들을 교육하고 (… 중략 …) 학문을 시키기만 하면 동양에서 으뜸 인종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 같은해 12월 3일자 논설에선 “조선 인민은 일본 인민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인종이다. (… 중략 …) 30년 후의 조선이 오늘날의 일본보다 뛰어난 나라가 되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한다. 여기에 서재필의 조선인으로서의 자존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백인종은 오늘날 세계의 인종 가운데 가장 예민하고 근면하며 용맹하다.”(1897. 6. 24)라 하여 서양 인종에 대한 열등의식을 숨기지 않는다. 또한 인종론에 대한 비판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서재필은 문명국 조선에 대한 희망을 장래 세대 즉 근대 학문을 배우는 유학생과 학생에 걸고 있었다. 예컨대 1896년 10월 8일자 논설은 ‘대조선인 일본 유학생 친목회’의 회보에 감동받아 쓰여진 것이다.<sup>42)</sup> 거기엔 “조선학도일본 유학생들은 이전 조선의 구학문을 내던지고 (… 중략 …) 태서(泰西) 각국인과 동등해지고자 노력해야 하며 단지 걸모습뿐만 아니라 학문, 지식, 처세술도 그들 것에 합치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조선은 자연히 아시아의 영국, 프랑스, 독일이 되리라.”고 말한다.<sup>43)</sup>

또한 1897년 1월 19일자 논설에선 “조선 인민은 독립이 무언지 몰랐다. 하지만 최근에 각 [근대식 학교 학도들이 마침내 독립의 뜻을 알고 (… 중략 …) 미국 독립선언문을 번역하고 독립의 의리와 경계와 요인을 공부하고 (… 중략 …) 내외 국민에게 애국 인민의 행실을 보여주고 있다. 덕분에 조선의 명예와 가치가 한결 높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 인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권 또는 조선 정부의 지위와 명예와 영광을 세계에 빛내고 강고하게 보존하길 죽는 날까지 기도한다.”고 말한다. 거기엔 조선인의 민권신장과 자주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그의 조국애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로 개칭된 채 같은 해 9월에 폐간)이었다. 이는 서재필이나 그 계열의 지식인보다 개신 유학자 그룹이 조선의 전통과 역사를 더욱 중시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42) 갑오개혁 정부는 1895년부터 96년에 걸쳐 약 200명의 관비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그들은 1895년 4월 도쿄에서 ‘대조선인 일본 유학생 친목회’를 결성했고 이어서 3개월에 한 번을 원칙으로 『친목회 회보』를 발행했다. 이 회보는 단순한 친목지 성격뿐만 아니라 조선에서의 최초의 근대적 학술지라는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그 발행에 대해 『독립신문』은 1896년 9월 22일자 「잡보」를 통해 “조선인도 점차 다른 나라의 학도들과 마찬가지로 학문상 유익하고 치국치민(治國治民)하는 방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노라고 호의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43) 한편 유학과 같은 구학문은 서재필에게는 멸시 또는 배제의 대상에 다름 아니었다. 예컨대 1896년 12월 22일자 논설은 “사서삼경(四書三經)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실상학문” 즉 서양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또 1897년 7월 24일자 논설도 “동양학문(=유학)을 비판하면서 외국인의 “실상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자주독립 - 민권과 국권

자주독립은 서재필의 생애 목표였지만 그 용어 자체는 『독립신문』 제6호인 1896년 4월 18일자 논설에 처음 등장한다.<sup>44)</sup> 거기서 “가령 일본이 [갑오개혁 정부의 시절에 (... 중략 ...)] 조선 인민으로 하여금 자주독립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고 군주를 사랑하고 백성을 구하기 위한 법률과 이치를 서서히 깨닫게 하고 신법을 잘 실행한 후 구법을 폐지했었다면 조선 인민은 일본을 정말로 고마운 벗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일본이 도와준다면 “조선은 진정한 자주독립국이 되어 양국 사이의 교제는 친밀해지고 (... 중략 ...) 아시아의 형세도 강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로써 서재필의 일본에 대한 애증(愛憎)이 엇갈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재필이 말하는 자주독립은 조선인의 자존과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확립을 함의한다. 이는 앞서 인용한 바 그의 말을 빌리면 “조선 인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권 또는 조선 정부의 지위와 명예와 영광을 세계에 빛내고 강고하게 보존”하는 것, 달리 말해 민권 신장과 자주독립의 양의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그에게 권리라는 관념 내지 개념은 무엇이며 또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을까? 그는 민권과 국권 내지 군권, 이들 양자 관계를 어떻게 논하고 있었을까?

서재필은 1896년 4월 30일자 논설에서 “자유독립의 사람”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자유독립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인민교육”과 “부국강병”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독립의 사람이란 ‘생명·재산·자유’라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근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서재필은 천부(天賦) 자연권이나 자연법이란 관념을 직접 언급하진 않는다. 이는 그가 수용한 권리 관념이 <근대적인 것> 특히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영향이 큰 것이었다는 점과 함께 당시의 19세기적 시대사조에 기인한다고 본다.

‘생명·재산·자유’라는 권리(right(s)) 관념을 제창한 사람은 존 로크이다. 또 그의 권리와 정치 사상이 미국 독립선언서나 헌법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런데 그는 신 또는 인간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자연법을 전제한 자연권 사상을 전개하긴 했으나 동시에 권리란 주로 사적(私的) 소유(property)에 기반한 것으로 간주했다(『市民政府二論』, *Two Treatise of Government*, 1689). 말하자면 노동을 통해 얻어진 ‘소유’나 ‘힘(권력, power)’이 곧 권리라 보았던 것이다. 이로써 생득적 권리로서의 자연권 관념은 거의 뒤로 사라진다. 더불어 이같이 소유·힘과 밀접히 결부된 권리 관념은 소유권적 내지 권력적 권리란 요소를 갖게 된다. 그리하여 권리는 자연법과 소유권·권력의 두 요소를 지닌다는 뜻에서 양의성 또는 모순성을 품게 된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 권리 관념의 자연법 요소는 잔존하나 점차 약화되고 반대로 소유권·권력

44) 이와 관련하여 『독립신문』의 ‘독립’이란 개념을 고찰한 논문으로 유준필, 2004 「19세기말 ‘독립’의 개념과 정치적 동원의 어법」 『근대 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있다.

요소가 강화되어 간다. 이에 따라 힘·소유와 결부된 권리 관념이 성행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자연권 사상이 약화되어 약자의 권리·자유란 관념도 거의 사상(捨象)되고 만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러한 소유권적·권력적 권리 관념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 강자의 권리·자유라는 관념이 횡행하게 된다. 그 배경엔 실정법주의, 실증주의, 공리주의, 인종주의, 사회진화론 등 시대사조가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서재필은 존 로크의 권리·정치 사상을 매개로 근대적 권리 관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아니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로써 자연권 관념은 뒤로 밀려나고 소유권적·권력적 권리 관념이 앞선다. 권리란 우선 강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약자가 권리를 얻으려면 소유·힘을 길러야 한다. 약자로 남아 있는 한 결국 그 권리는 부정되고 만다. 여기에 서재필의 강자 동경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재필에게서 자연권 관념이 뒤로 밀려난 요인엔 그의 유교 멸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의 유교 멸시가 유교·주자학에 내포된 자연권 관념의 계승을 저해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청국, 일본, 조선 등 동아시아 3국의 지식인들이 서양의 권리 개념 특히 자연권 관념을 무엇보다 유교·주자학의 ‘天, 性, 道, 理’ 등 개념을 매개로 수용했다, 달리 말해 이종교배(hybridization)했다는 사실에 있다.<sup>45)</sup>

예컨대 자연법은 ‘性法’이라 번역되어 통용되었고, 자연권은 ‘천부’의 권리로서 ‘正理, 천지의定理, 道理’ 등 개념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주자학의 ‘天理自然’이란 명제와 이에 바탕한 당연(當然)의 권리라는 관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같은 관념을 ‘천부자연권’에 대비시켜 ‘천리자연권’이라 부르고 있다.<sup>46)</sup> 또 유교의 민본 사상 역시 권리 개념이나 자연권 관념을 수용하는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서재필의 권리 관념은 <근대적인 것>으로서 ‘천리자연권을 비롯한 권리 관념의 <전통적인 것>과의 이종교배의 산물’이 아니다. 이것이 그의 자연권 관념을 약화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본 것이다.

거듭 말하나 서재필에게 권리란 우선 강자의 권리이다. 자유독립의 사람도 자주독립의 나라도 힘과 소유를 가진 강자가 아니면 누릴 수도 만들어 낼 수도 없다. 그래서 “조선도 문명진보하고

45) 이에 관해서는 金鳳珍, 『東アジア「開明」知識人の思惟空間 鄭觀應・福澤諭吉・俞吉濬の比較研究』, 238-250면. 참조. 여기엔 정꾸안잉(鄭觀應), 후쿠자와, 유길준 등 동아시아 3국 지식인들에 의한 권리 개념의 수용 즉 이종교배 양상이 비교분석되어 있다. 또한 金鳳珍, 2008 「西周における『權利』觀念の受容と變容—俞吉濬との比較考察」 『社會システム研究』6(北九州市立大學社會システム研究科編)도 참조 바람.

46) ‘천리자연권’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자학에서 理는 하나이자 사람을 포함한 자연만물에 모두 부여되어 있다(理一分殊)고 본다. 그것은 또한 사람의 도리와 만물의 물리를 일관하는 길(道), 즉 자연스럽고 당연한 보편 법칙이자 규범이다. 이 道란 개념도 理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만물(=자연)을 일관하는 일종의 자연법이며 자연권의 관념을 내포하거나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서 하늘(天)로부터 명(命)이 주어진 사람의 理는 성(性: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으로 이해된다. 이것이 예컨대 『中庸』의 ‘天에서 命을 받으니 이를 性이라 일컫는다. 性을 따르니(率) 이를 道라 일컫는다’(1장1절)라 했듯이 성 역시 자연법이나 자연권 관념을 내포하거나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주독립한 나라임을 세계에 알려야 하며 이것이 “조선 신민(臣民)의 직분(義務)”이라고 논한다(1896. 7.28). 말하자면 조선인은 국권을 강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를 지닌 신민이다. 여기엔 우선 국권을 확립해야 민권이 가능하다는 발상, 달리 말해서 국권없이는 민권도 없다는 국권 우선론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권 우선론은 당시 국가간의 약육강식적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발상에 다름아니다.

이리하여 서재필의 권리 관념은 필연적으로 강자 동경을 수반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의 자주 의식은 “아누스적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sup>47)</sup> 즉 그의 자주 의식은 국권 확립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가지는 반면,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자주성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다. 더욱이 그의 강자 동경은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식을 약화시켰고 오히려 때로 동조(同調) 언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의 동조 언설은 조선도 열강과 마찬가지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는 국권 확장론처럼 보이는 언설, 그리고 열강의 제국주의를 긍정하는 듯한 친(親)제국주의적 언설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권 확장론처럼 보이는 언설이 담긴 유일한 사례로서 1896년 8월 2일자 논설을 고찰해 보자. 거기엔 “부국강병하기 위한 학문과 풍속에 힘쓰다면 조선인도 영국인, 미국인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조선도 청국을 공격해서 요동(遼東)과 만주를 점유하고 배상금 8억엔을 받을 것이다. 바라건대 조선인은 뜻을 크게 갖고 10년 후에는 요동 만주를 점유하고 또한 일본으로부터 대마도를 되찾을 생각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이 등장한다. 이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거기엔 어디까지나 미래 조선의 국권 확장에 대한 희망이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실제로 국권을 확장해야 한다는 국권 확장론은 아니며, 그런 뜻에서 국권 확장론처럼 보이는 언설인 것이다.

위의 언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권 확장론이 아니라 오히려 국권 확립에의 강력한 의지를 계발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거기엔 조선인 입장에서 보면 <요동 만주나 대마도는 원래 조선의 고지(故地)이며 따라서 장래 회수해야 할 실지(失地)>라는 고래(古來)의 잠재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선인 고래의 잠재 의식을 자극함으로써 당시 자국의 국권 확립에 전전공공하면서 국권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조선인에게 자존과 용기를 주어 분발을 촉진하려는 수사적 언설이라 볼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거기엔 또한 당시 조선인의 반청·반일 의식이 감정적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즉 청국에 대한 울분과 증오와 멸시, 그리고 일본과 그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와 경쟁과 위기의식 등이 그것이다. 이들 의식을 극복하려면 청국이나 일본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강국 조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자면 고지와 실지를 회수할 각오로 대국 조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런 뜻에서 위의 언설에는 국권 확장과 국권 확립이란 두 가지 발상이 착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7) 김영작, 1989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 청계연구소, 373면.

따라서 이를 보고 나서 서재필이 '제국주의를 미화했다'고 평가함은 좀 지나치다 할 것이다.<sup>48)</sup>

다음으로 친제국주의적 언설의 사례를 살펴 보자. 먼저 1896년 11월 12일자 논설은 “청국과 같은 추한 정부는 단지 만주와 산둥(山東)성의 권리를 잃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청국 전국을 누군가에게 일제히 분할시켜 그 백성을 개화하고 토지를 개척”하는 편이 낫다고 하면서 “스스로 문명 진보할 수 없다면 차라리 러시아든지 그 밖의 나라에 쫓겨 나게 하는 편이 청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는 청국에 관한 견해이긴 하나 어쨌든 열강의 제국주의를 긍정하는 듯한 친제국주의적 언설을 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단 청국에 대한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을 그대로 긍정했던 것만은 아니다. 앞서 본 친제국주의적 언설은 실은 청국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분발하고 변화하라는 메시지 또는 일종의 경고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1897년 2월 4일자 논설에서는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몇해도 지나지 않아 청국의 독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 중략 …) 그 동안에 역경에 빠지는 것은 국가이며 백성이다. (… 중략 …) 필경 유럽의 강대국에 독립권을 빼앗겨서 미안이나 베트남처럼 될 것이다. 어찌 동양 나라들에 크게 관계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한다. 여기엔 청국과 그 백성에 대한 동정이 표명되어 있다. 또한 청국의 식민지화는 곧 동양 나라들의 불행이자 그들 역시 식민지화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근심이 드러나 있다. 그런 뜻에서 이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청국에 대한 동정은 다음과 같이 조선인에 대한 경고와 분발 촉구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1898년 1월 11일자 논설은 “현재 청국의 형세는 매우 불쌍하다.”면서 “이같은 증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 중략 …) 대한의 인민은 자주독립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청국에 대한 동정의 표명과 조선 자주독립에의 의지는 표리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당시 청국의 애처로운 실태는 서재필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이자 조선의 거울과 같은 것이었다. 당시 조선도 청국과 다름없이 애처로운 실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1897년 3월 6일자 논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선인이 지금의 기회를 놓쳐서 (… 중략 …) 구습에 매달려 주저앉고 있다면 그 때에는 외국이 조선에 개입하고 억지로라도 나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어찌되든 조선이 개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화는 조선인 스스로가 주도해야 하며 외국인을 고용할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조선인이 주인이 되어서 알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여기에는 친제국주의적 언설과 자주 즉 반제국주의적 언설의 모순적 착종이 보인다. 이는 어찌된 서재필의 자기 분열이나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표상할 지도 모른다.

48) 예를 들어 이나미는 『독립신문』의 논설과 『윤치호일기』에 보이는 인종주의와 사회진화론의 언설을 검토한 후 “이와 같이 이익 추구 및 경쟁심을 강조하는 [서재필과 윤치호의] 자유주의사상은 문명사회에 대한 동경과 함께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를 도출하여 제국주의를 미화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나미, 2001 『한국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100면.

단 이 논설의 주지는 역시 조선인의 자주적 개화에 대한 분발 촉구에 있음은 의심할 바 없다.

서재필의 문명개화론과 자주독립론은 한마디로 실력양성론이라 볼 수 있다.<sup>49)</sup> 그런데 실력을 양성하여 열강의 제국주의에 대항해야 할 것이나 동시에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려면 열강의 선진 문명, 제도, 학문 등을 수용해야 했다. 그의 '론(論)'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동조 사이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셈이었다. 하긴 이 딜레마는 그의 '론'에 보이는 강자 동경과 약자 동정의 양면성이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단 그같은 딜레마의 발생은 그의 '론'에서만 기인하는 문제는 아니다. 크게 보면 근대(성)의 양면성과 그 바탕에 있는 이원론이나 이원사고 특히 이항대립적 사고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이다. 예컨대 문명개화는 문명/야만 이분법을 바탕으로 서양의 지배를 정당시하고 비서양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식민지주의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한편 자주독립은 <자기>와 <타자>를 대립시켜 <타자>의 권리나 주권을 탈취하는 등 차이화, 차별화의 구실이 되었다. 내셔널 아이덴티티 역시 같은 구실이 되기도 했다.

문명개화와 자주독립은 근대(성)의 양면성을 수반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서재필은 문명개화를 포기해서라도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도 없고 자주독립을 부정해서까지 제국주의에 동조할 수도 없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 게다가 자주독립을 위한 문명개화 즉 국내의 실력양성이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을 때, 여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는 딜레마도 안고 있었다. 그러한 딜레마를 탈피하려는 방도로써 서재필은 제3의 길을 모색한다. 여기서 제3의 길이란 만국공법(약칭: 공법)의 활용론과 세력균형에 의한 중립외교론, 그리고 조선·일본·청국의 3국연대론 등 외교론을 가리킨다.

첫째 공법 활용론을 살펴보자. 서재필은 어떤 독자의 투고를 『독립신문』에 세 번 연재하고 있다. 그 두 번째 글인 1898년 1월 20일자 논설은 “만국공법은 대포일문(大砲 一門)보다 못하다. 정치와 법률에 무슨 볼 일이 있겠는가.”라는 문장을 소개한 뒤 “이것은 지각 없는 자의 말이다.”라고 비판한다.<sup>50)</sup> 그런 다음 “강대국은 만국공법을 버리고 대포일문을 쏜다. 그러나 약소국은 만국공법을 쓴다. 이야말로 관중(管仲: 중국 춘추시대齊 나라의 재상, 법가의 祖)이 한 일이다.”라는 공법 활용론을 전개한다.<sup>51)</sup>

여기엔 다음과 같은 현실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우선 당시를 강대국 사이에 무력과 약육강식이 횡행하는 무질서 시대로 본다. 다음으로 그래도 여전히 국가들은 공법에 따라

49) 그런 뜻에서 서재필은 후일 안창호(1878-1938), 이광수(1892-1950) 등으로 이어진 실력양성론의 선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덧붙이자면 조선의 식민지 상황 하에서 실력을 양성하지는 안창호, 이광수 등의 주장은 자칫 '현상(現狀) 유지'론에 빠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현상 타파'를 외치는 독립투쟁론과 대립,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50) 여기서 “만국공법은 대포일문보다 못하다”는 말은 후쿠자와의 「백권의 만국공법은 몇 문(門)의 대포에 미치지 못한다」(『通俗國權論』7장의 「外戰止むを得ざる事」)를 연상시킨다.

51) 이 점에서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회원이었던 이승만(1875-1965)으로 대표되는 외교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런 뜻에서 공법은 질서 원리나 국제 정의의 법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따라서 약소국은 공법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유가의 왕도는 옛것이 되고 말았다. 지금은 법가의 패도에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도출된 공법 활용론. 이는 약소국 조선에겐 교육지책(苦肉之策)으로서 이룰데면 이상주의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정책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약육강식적 강국 정치의 장에서 보자면 이는 비현실주의적 이상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될지 모른다. 공법 활용판으로 약소국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인지해서였을까? 등 논설에서는 공법 활용론과 함께 중립 외교론도 전개된다.

즉 조선은 청국,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등 어느 나라에도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각국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팔방미인(八方美人)의 정태(情態)와 용감하고 튼튼한 장부의 기성(氣性)을 가지고 치우친 교제하지 않고 동서 양측에 연합되어 화친하며 서로 제어하는 기세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보호 중립에 가까운 (… 중략 …) 수단이다.”라고 한다. 다시 말해 각국과의 교제 확충을 통해 조선을 둘러싼 세력 균형의 상황을 만들어 내고, 그런 상황 하에서 다국간 중립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조선의 자주독립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는 세력균형에 의한 중립 외교론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세번째 글인 1898년 1월 20일자 논설에선 “빈약국의 근본이자 큰 보물은 신의(信義)라는 글자다. 신용을 지켜 (… 중략 …) 원려(遠慮)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신의 수호론을 전개한다. 원래 신의란 유교적 덕목의 하나이지만 여기선 근대어로서의 신용과 원려로서의 의라는 두 개념을 표상한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신용은 trust를 뜻하며 원려란 prudenceand/or care를 함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쨌든 신의는 글자 그대로 신의 선(善)과 의의 바름(正)이 결합된 개념이다. 그런 뜻에서 신의 수호론은 이를 무시하는 당시의 현실이나 <강자의 권리> <힘이 정의>라는 명제에 대한 비판·저항 의식을 담고 있다.

그런데 결과론이긴 하나 당시의 현실은 조선이 중립 외교론을 실현시키기에 머나먼 곳에 있었다. 실제로 당시의 대한제국 정부는 중립 외교 정책을 펴기로 하고 나아가 조선의 중립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는 특히 19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열강의 공동 협조를 얻지 못한 채 러일전쟁을 계기로 파탄되고 만다.

한편 『독립신문』은 3국 연대론을 전개하기도 한다.<sup>52)</sup> 그 대표적 논설을 두 개만 살펴 보자. 하나는 1898년 3월 30일자 논설로서 이는 당시 독립협회 회원이던 윤기진이 투고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늑대같이 탐욕스런 나라이다.<sup>53)</sup> 이에 비해 일본은 조선을 “사랑하고 보호하

52) 『독립신문』의 3국 연대론 즉 아시아 연대론에 관해서는 金鳳珍, 2005 「近代朝鮮の東アジア認識」 『「東アジア」の時代性』(荒野泰典의 編), 溪水社, 68-69면; 月脚達彦, 2005 「『獨立新聞』における『自主獨立』と『東洋』」 『韓国・日本・「西洋」—その交錯と思想變容』(渡邊浩·朴忠錫編, 『日韓共同叢書』11), 慶應義塾大學出版會, 315-326면.

려는 인정이 없긴 하지만 땅과 인민을 탐내 점유하려고 하지는 않는” 나라이다. 그리고 일본이 해군을 확장하는 목적은 “러시아를 동양나라들과 협력해서 막으려는 데 있다.”고 한다. 이런 때에 “청국은 꿈을 꾸고 있고 대한조선은 술에 취해 있다. 여기서 ‘동양나라들과 협력’이란 달리 말해 3국 연대를 뜻한다. 이 3국 연대에서 일본은 맹주(盟主)적 존재이다.

또 하나는 1898년 4월 7일자 논설로서 거기엔 “대한과 일본과 청국은 공히 아시아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자가 같은 종자이다. (… 중략 …) 삼국은 교제를 가장 친밀히 하고 서로 보호하여 도와줌으로써 (… 중략 …) 서둘러 유럽의 침범을 동심(同心)으로 막지 않으면 안된다.” 라면서 지리적 근접성이나 같은 인종이란 입장에서 3국 연대를 주장 한다. 다만 청국은 구습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대한은 “일본과 협력하여 청국을 강제로라도 개명(開明)에 인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는 대한과 일본의 협력과 주도에 의한 3국 연대론이라 할 수 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독립신문』의 논설에는 <강자>에 대한 동조와 저항이 복잡하게 착종하고 있다. 하지만 동조의 측면이 더 강하다. 또한 거기에 보이는 국권론이나 민권론의 경우에도 <강자의 권리>에 대한 동조의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조선과 조선 인민이 강한 <힘>을 기르지 않는 한 스스로의 권리를 확립할 수 없다고 보는 인식 역시 강하다. 물론 민권론은 기본적으로 <강자의 권리>에 대한 저항 언설의 측면을 지닌다. 왜냐면 그 민권의 주체는 약자인 조선 인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단 국권은 민권에 우선한다. 이는 당시 현실에서 약한 나라의 인민은 권리를 향유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군권 역시 민권에 우선한다. 이는 강력한 군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타국의 멸시를 당함은 물론 자주독립을 확립하고 문명개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판단했기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독립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논설들이 등장한다.

지금은 조선의 대군주 폐하가 세계 각국의 제왕과 동등해졌고 따라서 조선 인민 또한 세계 각국의 인민과 동등해졌다. (… 중략 …) 국가가 독립해서 타국의 제왕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것은 곧 폐하의 직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폐하의 직위를 높여야 신민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896. 6. 20)

조선의 대군주 폐하가 세계의 문명개화국의 제왕과 동등해져 조선 인민이 외국 인민과 똑같이 남에게 대우를 받도록 (… 중략 …) 군주와 백성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 중략 …) 만약 어느 나라든 조선에 대해 무례한 행동을 하고 조선의 명예와 나라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일이 있다면 그 때에는 (… 중략 …) 동심 협력해서 나라의 위엄을 남에게 보여줘야 한다.(1896. 7. 30)

여기서 군주는 국가와 거의 동일시된다. 그리고 군주의 직위나 지위가 타국의 그것과 동등해

53) 러시아에 대한 이같은 혹평의 배경에는 이 시기 독립협회가 '자주국권수호론과 이권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열강 특히 러시아의 이권획득 요구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는 상황이 있다. 자세한 것은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277-302면 참조.

저야만 조선 인민의 권리도 타국 인민의 그것과 동등해진다. 이 논리의 배경에는 어쩌면 군민일체(君民一體)라는 유교적 관념이 깔려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민의 권리(=타국 인민과의 동등권)는 어디까지나 군주의 직위나 지위에 종속되어 있다. 그런 뜻에서 군권은 민권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권우선을 이나미는 군권옹호라 하면서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sup>54)</sup> 이는 당시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필연적이지 애국주의와 동일한 것이라고 또한 '국민 불신'과 '선(先)개화, 후(後)민권'을 표상한다고. 마지막으로 이는 근대 자유주의와 양립 가능하다고. 필자도 모두 동의한다. 단 거기서 "유학사상과 마찬가지로 『독립신문』은 군권의 절대우선, 군주에 대한 국민의 절대충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나미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분명히 서재필의 『독립신문』은 군권을 옹호했다. 그렇지만 '군권의 절대우선, 국민의 절대충성을 주장했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우기 '유학사상과 마찬가지로'라는 서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기엔 근대주의적 시각에 의한 편견 또는 스스로 형성시킨 오리엔탈리즘이 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래 유학 사상은 절대 군권이나 절대 충성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것에 반대하며 저항한다. 예컨대 군주의 덕치를 요구하거나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권을 제한한다. 그리고 유학에서 가르치는 충성이란 군신, 군민 사이의 쌍무적이고 계약적인 성격이 강하다. 게다가 맹지는 인민의 혁명권 사상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유학은 설령 서재필이 이를 멸시했을지라도 그의 사상과 아이덴티티의 바탕이었다. 그의 민권 사상에도 전술한 바 유학이나 주자학의 관념들이 근대의 권리 관념과 이종교배된 채로 투영되어 있다고 본다. 하나만 예를 들면 『독립신문』의 1896년 9월 19일자 논설에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나라가 평안해 질 수 없다."는 말이 보인다. 그 원전(原典)은 '民惟邦本, 本固邦寧' (『書經』五子之歌)으로 보인다. 이는 바로 민본 사상의 전거(典據)다. 거기엔 민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권 사상은 서재필이 계몽 활동을 시작한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조선 민중 사이에 급격히 확산, 침투되어 나갔다. 예컨대 독립협회는 1898년 3월 10일에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던 바, 이는 같은 해 12월 25일에 해산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지주민권자강' 운동을 전개하면서 '언론, 집회 자유권 수호운동, 의회 설립운동' 등을 통해 민권 사상을 전국적으로 고취시키는 성과를 올렸던 것이다.<sup>55)</sup> 그 배경에 민본 사상을 포함한 유교는 물론 조선의 전통 사상이 작용하고 있었음은 의심할 바 없다. 그 성과는 아마도 서재필의 예상을 훨씬 넘는 것이 아니었을까?

54) 이나미, 앞의 책, 127-128면.

55) 자세한 것은 신용하, 앞의 책, 311-377면 참조.



#### 4. 맺음말

파르타 채터지에 의하면 동양(비유럽)의 내셔널리즘은 서양(유럽)의 그것에서 파생된 언설이다.<sup>56)</sup> 내셔널리즘은 산업화와 민주화, 자유와 진보를 상징하는 한편으로 폭력과 전제(專制), 배제와 억압을 긍정한다는 모순적 이중성을 띠고 있었다. 이에 적응하는 형태로 동양 나라들은 자국형 내셔널리즘을 <발명>하면서 또한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재생산해 왔던 것이다.

단 동양의 내셔널리즘이 서양의 그것에서 파생된 언설이라고 할지라도, 그 파생 과정에선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서양 <근대>와 자국 <전통>과의 이중교배가 벌어진다. 달리 말해 동양의 내셔널리즘은 서양의 그것을 <전통>이라는 기반에 이식시킴으로써 <발명>된 언설인 것이다. 거기엔 당연히 내셔널리즘에 대한 동조와 반발, 모방과 저항의 두 언설이 혼재한다. 요컨대 동조 언설과 저항 언설의 양면을 지니는 것이다.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말한다면 동조 언설은 근대 지향이 강하고, 저항 언설은 전통 또는 반(反)근대 지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동조 언설은 근대 언설과 그 바탕의 사고, 인식 등을 자기 안에 침투시킨다는 뜻에서 자기 식민지화를 함의한다. 이에 따라 강자=식민자(colonizer)에 의한 약자=피식민자(the colonized)의 지배-억압 관계, 구조를 용인 내지 긍정하는 성향을 갖는다. 그렇기는 하나 다른 한편 약자=피식민자의 저항 내셔널리즘이나 아이덴티티에 대한 동정 또는 동경을 그 속에 품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식민주주의에 대한 저항 언설을 낳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동조와 저항은 실은 결과 속 관계에 있으며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인 상극(相剋) 관계에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결국 내셔널리즘 언설에서 동조와 저항의 어느 쪽 경향이 강한가하는 문제는 이를 발(發)하는 사람과 상황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서재필의 경우 근대 지향이 강했던 만큼 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는 동조 경향이 강했다. 그런 뜻에서 그의 내셔널리즘은 조선인에게 근대의 정(正)의 측면을 전달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부(負)의 측면을 전파했음도 사실이다. 또 구미중심적 근대주의나 오리엔탈리즘을 전파했음도 역시 사실이다. 반면 '전통 떠나기를 조장하면서 전통 특히 그 정(正)의 측면을 살피고 계발할 수 있는 여지를 좁혔다. 그 결과 전통과 근대를 <올바르게>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그런 뜻에서 어쩌면 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는 조선의 진정성(authenticity)에서 멀어진, 혹은 뿌리가 잘린 것이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근대에 속박된 채로 있는 오늘날 한국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서재필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그 언설에 담긴 근대성은 오늘날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할 우리들 현대인의 과제이다. 오늘날은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나, 탈근대에 의한 근대성 극복

56) Partha Chatterjee, 1986 *Nationalist Thought and the Colonial World: A derivative Discours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들의 사고, 인식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는 근대의 속박을 초극(超克)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식민주주의, 그리고 횡행하고 있는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넘어서고자 일각에선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나 '아이덴티티 정치'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비판적 성찰이나 극복, 초극은 근대성이 지닌 부정적 측면이나 시대적 한계를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식으로 과잉한 비판에 빠져서는 안된다. 근대성이 지닌 긍정적 측면을 외면해서도 안된다. 또한 근대성 특히 비서양의 그것에 담긴 <반(反)근대의 근대> 측면, 성향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예컨대 서재필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근대성은 부정적 측면이나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을지라도, 그 안에는 '저항'으로 표상되는 <반근대의 근대>가 담겨 있다.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면 거기서 우리들의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넘어서거나 적어도 '건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사나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들 현대인의 과제 중 하나는 내셔널리즘/내셔널 아이덴티티에 의한 국민 통합(= 동일화)을 이상적 상대나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을 피하는 한편 식민주주의적 인식 기제나 세계 구조를 비판하는 일이다. 그러나 '저항 내셔널리즘'의 일면인 문화적 저항이나 탈식민지(post-colonial) 사상을 경시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셔널리즘/내셔널 아이덴티티를 단순히 '넘어서는' 일이 아니라 저항 내셔널리즘의 탈식민지 감각을 공유하면서 내셔널리즘의 부정적 측면을 안으로부터 해체시켜 가는 일이다. 달리 말해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속성인 배제와 포섭의 원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헤게모니 시스템의 서열화와 식민주주의의 지배-억압 관계와 구조에 저항하는 일이다. 이로써 내셔널리즘/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글로벌-리전얼(Global-regional-national-local)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상대화함으로써 이를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번역 : 이경미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 내셔널 아이덴티티, 상극, 자존, 멸시, 자주독립, 근대성

투고일(2008.4.10), 심사시작일(2008.4.25), 심사종료일(2008.5.12)

〈Abstract〉

Formation and Friction of Suh Jaepil's National Identity

Kim, Bongjin \*

This article clarifies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friction of Suh Jaepil's national identity. First, I will shed light on the inter-relations among self, other(s) and the internal-external context of Chosŏn, with its change, in the process of formation of Suh's national identity. Next, to understand the friction of Suh's national identity, I will examine the articles of the newspaper "The Independence" published by him. This examination is divided into two subjects of the 'viewpoint of Chosŏn—self-esteem and contempt for Chosŏn' and the 'sovereignty-independence—national right(s) and power of nation-state.' Finally, I will critically reflect the modernity of Suh's national identity.

Key Words : national identity, friction, self-esteem, contempt, sovereignty-independence, modernity

---

\* The University of Kitakyushu Faculty of Foreign Studies Dept.of International Relations Professor